



세계 팝시장 뒤흔든 BTS·블랙핑크...美 영화계는 '윤여정 홀릭'

2020년은 그들 방탄소년단·블랙핑크·트와이스 등 케이팝 스타들은 물론 '사랑의 불시착'과 '기생충' 등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전 세계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해로 기록된다.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 히트작 1억명을 넘어섰다. 그만큼 대중문화 콘텐츠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지구촌의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. 그 대표적인 주역들의 2021년 성과와 활약을 세계지도로 구성한다.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최근 각각 내놓은 '2021 해외 한류 열매 조사'와 '2020 지구촌 한류 현황 보고서'를 토대로 삼았다.

